

외부지원사업을 통해 본 건강가정 서비스의 현황

: D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례 중심으로

이 은 실(경희대 석사과정) · 오 윤 자(경희대 교수) · 유 행(경희대 석사과정)

가족정책 전달체계인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2012년 건강가정사업은 6개 유형은 대별되어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가족교육, 가족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상담, 가족친화문화조성, 가족돌봄지원, 다양한 가족 통합서비스, 지역사회연계로 이루어진 바 있다. 이를 보편적 건강가정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돌봄의 가족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에 따른 토요일의 강화를 강조하는 가족단위의 통합적 서비스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역 및 거주가족 특성에 기초할 때 특성적 건강가정사업, 즉 외부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외부지원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2012년도 외부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둘째, 프로그램별 이용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편적 특성의 건강가정사업 서비스가 미처 포함하고 있지 않은 가족의 또다른 다양한 욕구나 상황을 발굴할 뿐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의 경계에 위치한 가족현상을 지원할 수 있는 대처방안 마련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 및 절차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D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개한 외부지원사업을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첫째, 프로그램 유형 및 주요내용을 알아보고 둘째, 이용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빈도를 산출 셋째, 현장실무자 중심의 정례회의에서 다뤄진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성과를 살펴보았으며 모든 내용은 2012년 사업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서비스 현황은 7개 유형으로 대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찾아가는 아버지교실은 가족친화직장문화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을 찾아가서 아버지교육을 전개, 17회기 298명 ② 부자합창단 및 아자Family는 노래·교육과 상담을 매개로 부-자녀 여가활동을 통한 관계향상, 친목도모, 사회공헌 전개, 각각 10회기 537명, 34회기 818명 ③ 인터넷중독예방 및 해피인터넷캠프는 인터넷의 건강한 사용을 위한 예방교육, 집단상담, 멘토결성, 자조모임으로 자기통제력 및 가족기능 향상 기여, 각각 89회기 5,486명, 20회기 126명 ④ 자치구특성화지원사업은 거주지역 중심 가족연대활동을 기반으로 가족친화환경조성, 공동체마을 형성 전개, 26회기 904명 ⑤ 조손가족지원은 문화경험 확대 및 가족캠프를 통한 존중감과 가족건강성 향상 목적, 28회기 72명 ⑥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은 전통놀이 및 관심있는 주제 중심으로 지역 유관기관 연계하여 취약계층자녀 대상 건강한 또래관계 형성, 자원체계구축, 21회기 33명 ⑦ 교통사고피해자심리안정지원사업은 심리검사, 방문상담, 가족캠프로 갈등과 문제해결, 자립능력 개발, 가족멘토체계구축 전개, 193회기 79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성과 및 시사점으로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가족서비스 전개, 이용자의 수 및 만족도가 높았고 후속 프로그램 욕구가 크게 나타나 지역사회의 자원연계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